

김은미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 Kim, Eunmee |

어려운 시기를 넘는 우리의 자세

공식적으로 경제 팽창시기였던 1995년 이후 15년 동안 - 평균적으로 미국의 국민 총 생산량은 매년 3%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올해는 지금까지 5.56% 하락하였다. 그 결과로 건축, 도시계획 그리고 도시 디자인 종사자들은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지금 우리의 상황도 건축계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게 느끼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은 새로운 경제가 원하고 필요하거나 혹은 더욱 중요하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은 어떤 종류의 건축과 Urbanism인가? 라는 절실한 명제를 던지고 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미 과대 포장된 어리석은 '스타'건축 시스템과 바로크식의 터무니없는 낭비 스타일을 답습한 디지털 성형 가공 건축의 죽음을 공언하며, 더욱 현실적이고 수수하며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시대의 시작을 환영하기 시작했었다. 특히 요즈음 같은 어려운 경제적 시기는 이러한 주장이 시대적 요구인 것처럼 보이게도 한다. 하지만 앞선 high design에 대한 비평은 최근 장관을 연출한 '스타'들의 업적을 종종 무시하고, 때때로 성공적인 국제 사무소에 대한 지역적 시기심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면 결국 건축사들이 오랫동안 논쟁해 왔던 목표인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디자인의 성공은 무엇일까? 사실 우리 내부에서도 우려할 정도로, 한동안 건축계 전문가들은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부류들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짝 거리는 새로운 도시창조를 실현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것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이것은 건축사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지만, 디자인 전문가들인 건축사가 우리의 도시에서 어떻게 우리가 상상하고 발전하고 살아갈지에 대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충분히 재 생각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극소수의 민간 발주와 정부 RFQs의 보류의 상황 속에서 보여지듯, 지금은 건축과 도시 계획, 그 직업의 본질을 재생각하고 사무실 내부에 연구의 문화를 적극 받아들여 발전 할 수 있는 완벽한 시기이다. 마치 과거 퇴보의 역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이러한 시기를 겪는 동안 분명히 건축 이론에 대한 영향,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작품은 거대해져 왔으며 그들 모두 번창하였다. 1930년의 경

제 공황은 건축사사무소들을 곤두박질치게 만들었고 (MoMA's 1932 Modern Architecture 전시회에 다 보여 지지 않았다.) 그리고 도시 계획가들을 물리적 디자인으로부터 벗어나 공공정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고려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아이러니 하게도 여러 흥미 있는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유발하였다. Frank Lloyd Wright의 Broadacre City, CIAM의 Athens charter, WPA의 innovative Greenbelt, 그리고 TVA의 새로운 마을 프로그램은 모두 이 시기의 작품들이었다. 또한 이 황량한 시기 동안 우리의 디자인 교육은 변환되었다: Walter Gropius는 Harvard에 GDS를 설립하였고; Mies van der Rohe는 Armour Instituted을 the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로 바꿔 놓았다. ; Buckminster Fuller, Josef and Anni Albers, 그리고 Black Mountain College의 다른 이들도 근대 교육에 예술과 디자인을 풀어 넣었다.

1970년대의 경제적 위기 또한 John Hejduk의 실험과 Cooper Union의 영향력 있는 건축교육을 등장시켰으며, the Institute for Architecture and Urban Studies 에게는 빛나는 시절을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도발적인 Delirious New York의 탄생의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연구 모델 혹은 독립 유닛을 수용한다는 것은 거대 사무소의 다운사이징이나, 건물을 세우는 것을 희망하는 젊은 건축사의 개업 연기, 또는 건축사들이 멋진 자동차를 소유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덩치 큰 프로젝트의 설계비 인하를 의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면에 이 시기는 앞선 역사적 선례에서 보듯 진실로 건축사들이 초심으로 돌아와 밤을 지새우며 미래를 다시 생각하고 심지어 어떻게 사고할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중요한 시기임을 잊지 않고 대비 하고 견뎌낸다면 융산 프로젝트에서 굴욕적으로 안방 까지 내어준 우리 건축계가 이 고비 이후 세계 건축계에 새로운 강자로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